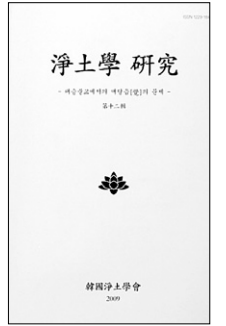


지장암, 조선후기 불교미술 산증인 “개인 신행 정도와 기부액 ‘비례’”

한국불교미술사학회, 지장암서 ‘지장암의 불교미술’ 학술대회

감정기 교수·서찬영 법사 ‘정도학연구’ 서 주장



지장암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작은 암자이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지장암은 보물 제1621호 목비로자나불좌상을 비롯해 조선 후반기를 대표하는 희귀하고 귀중한 불상·불화·불구 100여 점 이상 소장하고 있다.

한국불교미술사학회(회장 문명대)는 3월 20일 지장암에서 ‘지장암 불교미술의 성격과 의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기초발표 ‘지장암의 불상과 광해군 발원, 목(木)비로자나불상의 의의’를 통해 “이 작은 사찰에는 44점의 불상과 우리나라 유일의 수(繡)패불화와 더불어 38점의 불화 등 많은 불교문화유산이 비장돼 있다”며 “조선시대 후반기 불교미술의 산증인이자 역사가 한자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지장암을 조선이 입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충격에서 벗어나 전국적으로 불교사원 건립과 불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던 1655년 전후 창건된 사찰로 보고 있다.

지장암은 원래 현 위치에서 동쪽으로 400여 미터 떨어진 서울 홍수동(현 창신동)에 소재했던 것을 1924년 옮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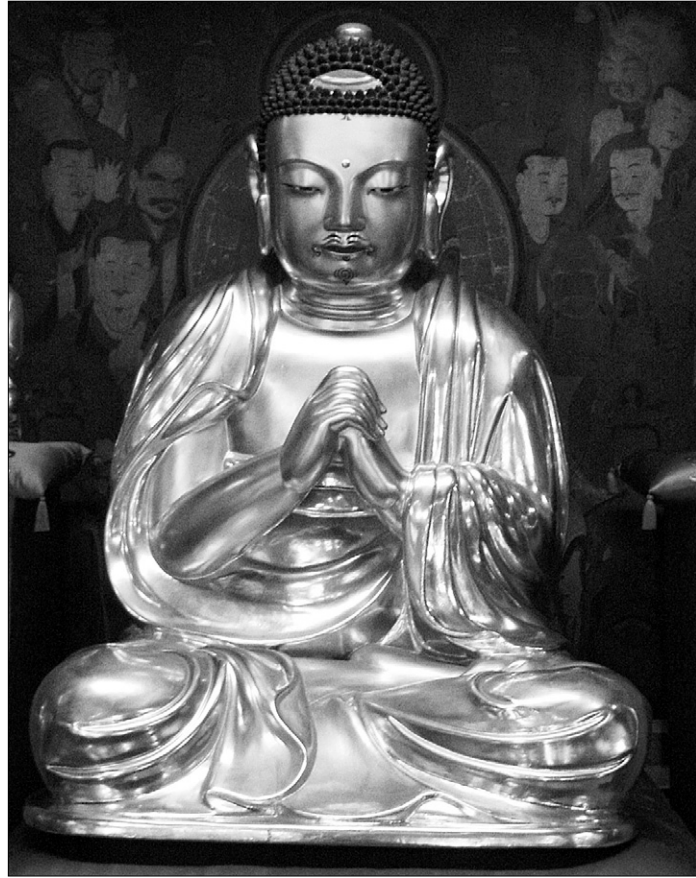
지장암에는 14종 49구나 되는 많은 불상이 봉안돼 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작품이 대부분인 이 불상들은 지장암에서 조성된 경우도 있지만, 전라남도·경상북도·경기도·서울·황해도 등 전국에서 조성된 것이다.

대표적인 불상이 1622년 제작된 ‘지장암 대웅전 현진작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다.

대웅전 중앙에 놓인 이 불상은 높이가 117.5cm달하는 중형의 목조불상으로 조선중기 승병장이었던 벽암 각성(碧巖 覺性·1575~1660) 스님의 갑수 아래 현진(玄眞), 응원(應源) 등 10여 명의 조각승들이 조성했다. 1924년 강재희(姜在喜) 거사가 지장암을 중창하면서 이곳으로 옮겼다.

문 명예교수는 “조선시대 17세기의 조각승 또는 유파들은 하나의 집단 내에서 일정한 지역을 근거로 불상을 조성했다. 이 때 합동작업에 참



보물 제1621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위), 비로자나불좌상 밑바닥에서 발견된 경전들과 복장품 및 후령통.

여한 조각승들은 당대의 명장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조성한 불상들은 시대를 대표할 만한 매우 중요한 작품들이었고,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이 대표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명대 명예교수는 “이 불상은 광해군(1575~1641)의 정비인 장열왕후가 직접 발원해 조성한 왕실 발원 불사라는 역사적인 가치와 17세기 전국에 걸쳐 활약한 대표적인 조각승들이 참여해 공동작업으로 이뤄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윤미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지장암의 불화와 수(繡) 지장보살도’에서 “지장암에 전해지는 고불화 20종 50점은 대부분 19세기말~20세기 초에 제작된 것들”이라며 “이 중에서도 ‘대웅전 수 지장보살도’와 ‘수 패불도’는 양적으로 빈약한 수(繡) 불화의 연구를 위한 매우 귀중한 작품이다”고 말했다.

이날 지장암 마당에서 공개된 수암비로자나불좌상(1924년)은 수불화로서는 세로561.5cm의 초대형 크기이다. 제작 기간만 무려 2년 6개월

에 675명의 인력이 참여했다. 448×286cm 크기의 화면에 딱 차 수놓은 이 패불도는 왕실 수사(繡師)의 작품답게 격조 높은 수기법으로 아미타 삼존불이 아름답게 표현돼 있다.

문명대 명예교수는 “패불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수(刺繡) 기법으로 조성된 아미타삼존 패불도는 일반 패불화와는 달리 온화하면서도 입체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당대 최고의 화사가 바탕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역대 수불화 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명예교수는 연구자료를 통해 “명단에는 3·1운동 33인의 한 분인 용성 스님의 이름도 있다. 용성 스님은 이 대작불사를 통해 나라와 백성들의 부흥을 간절히 염원했을 것”이라며 “또한 지장암 불사의 주요 인물인 왕실의 고관이었던 강재희 거사가 675명이나 되는 시주자를 모집하고 스스로 거금을 시주한 것은 일제 강점기라는 고난의 시대에 간절한 염원이 없었서는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대문 밖 삼대암자인 청룡사, 안양암, 지장암 뿐 아니라 도선사, 수국사, 불암사, 홍국사 등 많은 사찰은 구한말 고종 때 고위관료를 지냈던 강재희(1860~1931)거사의 불사가 큰 역할을 했다.

지장암 주지 정철 스님은 “강재희 거사는 조선말의 궁내부 고관으로 재직 중에는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불사에 진력했고 퇴임 후에는 손수 지장암을 중창하고 많은 불사를 주도한 위대한 불교인”이라며 “근대 불교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고 새롭게 조명해야 할 진정한 불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불교미술사학회는 비로자나불의 복장품(腹藏品)을 공개했다. 이 불상 밑바닥에는 복장공이 있는데 이 안에는 <다라니> <회엄경> <법화경> 등의 경전이 있었다. 또한 안쪽에는 노란 보자기에 안 불상, 불화를 조성할 때 함께 넣은 오곡(五穀)·오향(五香)·오약(五藥) 등의 복장품을 담은 은제 후령통(候鈴筒) 등이 들어 있었다.

이어나 기자 bohyung@buddhapia.com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던 사회적 기부가 확산되면서 종교 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의 아이티 모금액이 12억 원을 돌파한 것을 비롯해, 태고종이 최근 국제구호단체 ‘나누우리’를 창립한 것이 그 예이다.

이런 가운데 “개인의 신앙생활 정도가 기부액과 비례한다”는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감정기 교수(경남대와 서찬영 법사(군수서랑부)는 한국정도학회 회장 태위가 최근 펴낸 <정도학연구>(사진) 제12집에 기고논문 ‘불교신자의 신앙생활특성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감정기 교수는 불자의 기부행위를 시간적 기부(봉사활동)와 물질적 기부(기부금)로 나누고 그것이 신앙의 정도 및 신앙생활상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설문 조사했다.

불자 2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사찰과 관련된 종교적 봉사에는 평균 1년간 2.03회, 봉사시간 2.63시간을, 종교 외적 봉사에는 0.56회, 봉사시간 0.97시간으로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은 종교적 기부(사찰 시주)와 종교 외적(지역사회) 기부별로 각각 연 평균 8.87회 63만 6000

원과 2.25회 20만 4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찰 내에서 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는 물질적 기부도 함께 한 사람이 87.1%로 다수를 차지했다. 종교 관련 물질적 기부 및 봉사 경험자들은 상대적으로 종교외적 기부나 봉사에도 더 적극적이었다.

감 교수는 “이러한 현상은 기부나 봉사에 대해 학습·확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신앙생활을 살펴본 결과 평균 신앙생활 기간은 15.9년, 정기법회 등에 참여하는 횟수는 월 평균 4.9회였다.

감정기 교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수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신도일수록 기부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부문 사회복지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교계 기부행위가 개인의 신앙의 깊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 교수는 “내적 이기심과 욕망을 관리할 줄 알 때, 기부에도 더욱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신자의 수행수준을 높이고 내재적 신앙의 역점을 둔 신앙생활 지도를 통해 개개인의 물질·시간

적 기부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정기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 종교인구 가운데 불자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들의 기부 참여 수준의 변화가 전체 사회의 기부 수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따라서 불자들이 수행과 신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사찰은 물론 범종단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감 교수는 불교계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감 교수는 “교구분사와 지역사회 중심 사찰들이 연합해 신도들의 자원봉사활동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찰은 교리강좌·정기법회 등을 통해 이타적 측면에서의 기부의 가치와 수행자의 사회적 책임을 가르쳐 기부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나 기자

기존 오류 잡은 ‘능가경’ 해석서 나와

박건주 외래교수 7권본 ‘능가경 역주’ 펴내

<능가경>은 선종의 초조인 달마 대사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전이다.

조기 선종의 소의경전이며 그 뿌리가 되는 <능가경>이 후대에는 거의 도외시되고 점점 잊혀져 가며 되면서 초기 선종의 선법도 올바르게 전승되지 못한 채 왜곡되고 곡해돼왔다.

한국불교는 회통,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한국불교는 선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건주 전남대 외래교수는 최근 7권본 <능가경 역주>(운주사 펴냄)를 펴내고 초기 선종의 가르침을 집대성했다.

현재 능가경은 4·7·10권본의 세 역본이 전해지는데 7권 본이 나

중에 나온 것으로 나머지 두 본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역한 것이다.

박건주 외래교수는 “한국선은 ‘중국화된 선’의 범주에 속한다 해도 무방하고 그 중에서도 입제선·간화선의 범주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달마로부터 시작된 선은 6조 혜능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겪고 이후 각각 특징을 갖는 분파들이 형성되면서 중국선 초조인 달마의 가르침과 초기 선종의 정신은 사라져 버렸다”고 말했다.

달마 대사는 2조 혜가에 <능가경>을 건네며 “이 <능가경> 4권을 너에게 부촉한다. 이 경은 여래심지(如來心地)의 요문(要門)이며, 모든 중생을 개시오입(開示悟入)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기록에 의하면 혜가의 제자 10인이 <능가경> 주석서를 저술하고, 달마대사도 혜가의 정에 의해 <능가경>을 저술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박 외래교수는 “이처럼 초기 선종에서 <능가경>은 절대적 중요성을 가졌고, 달마 이래의 선종을 ‘능가경(선)’이라고 칭했다”며 “원효 대사로 <능가경>에 대해 5종의 주석서를 저술했다고 하니 능가경이 얼마나 중요한 전제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외래교수는 “<능가경>의 역주본을 통해 잊혀진 초기 선종의 가르침과 행법의 전모가 올바르게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나 기자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한 기원대제

- 무사고 1만 점등 기원 -

귀의상보하옵고

새만금 사업의 성공 및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기원하며 새만금 사업에 희생된 바다 생명들의 넋을 위령하는 ‘새만금 사업 성공을 위한 기원대제’에 초대합니다.



- ◆ 일시: 2010년 4월 4일 일요일
오후 1시(음) 2월 20일
- ◆ 장소: 새만금 가력 배수갑문 광장
- ◆ 주최: 한국불교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총무원
- ◆ 주관: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 신도회
- ◆ 문의: 063) 246-1666

제12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진각종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연구 발전을 위해 ‘제 12회 진각논문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분야	공모편수	주제		비고
		지정주제	자유주제	
진각종 교학	2편	계율의 성립과 변천문제	제한 없음	지정 주제 내용 지정 주제 공모 취지 www.jingak.or.kr 진각논문대상 공모 광고에서 다운로드
불교 일반	3편			
밀교 일반	3편			

- ▶ 공모분야 별 지정주제 응모자에게 우선 선정권을 부여합니다.
- ▶ 응모자격: 제한 없음.
- ▶ 전형방법: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소정 양식: 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공모일정: 접수 마감 - 2010년 5월 14일(금요일)
당선작 발표 - 2010년 6월 18일(금요일) 예정
당선 논문발표회 - 2010년 11월 12일(금요일) 예정
- ▶ 당선작 상금: 최우수 1편(500만원), 선정 7편(편당 250만원)
-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타 논문 공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취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접수처: 136-865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합연구실
인터넷홈페이지: www.jingak.or.kr / e-mail: jingakrcsr@hanmail.net
전화) 02)913-0133, 0134 / 핸드폰 010-9005-0751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